

【붙임 서식3】 활동보고서

북토피아 ____회 활동보고서

제출일 : 2020. .

작성자 :

동아리 운영정보			
동아리명	찬반형 토론 우수 사례	지도교수	(인)
모임일시		모임장소	
참석자			
불참석자			
오늘의 독서 토론			
도서명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내용(사진 포함) <p>‘차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느낀 점</p> <p>A - (생략) 가장 와 닿았던 사상은 이번 토론주제인 ‘초인사상’ 이였습니다. (중략) KTX를 타면 빠르게 목적지에 갈 수 있지만, 창밖의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을 수 없습니다. 무궁화호를 타면 목적지에 다소 늦게 도착하는 경향이 있지만, 창밖의 예쁜 그림들을 눈 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살아오는데 있어 남들보다 빠르게, 늦으면 안 된다는 스스로를 세뇌하고 목표지향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초인사상은 ‘한번쯤은 인생의 무궁화호를 타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 멋진 책이였습니다.</p> <p>B - (생략) 책의 차라투스투라가 말한 “신은 죽었다”라는 문구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그냥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신은 죽었다 하는 무신론자인가보다 했는데 사실은 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신에게 의존하며 살지 말고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살라는 뜻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신은 죽었다’ 라는 몇 글자로 줄인 것을 보아 니체는 굉장히 비유의 대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략)</p> <p>C - (생략) 그동안에는 바쁘게 살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함을 찾지 못하고 힘든 것만 내세우고 지쳐있는 저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초인사상이라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힘든 순간들이 많지만 최대한 스트레스는 덜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힘들음을 극복하기 위한 행복함과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야 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p>		

찬성 1

니체의 책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머리말에 “사람은 동물과 위버맨쉬(Übermensch) 사이를 잇는 밧줄, 심연 위에 걸쳐 있는 하나의 밧줄”이라 말했는데, 이는 인간이 그 자체로는 불완전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니체는 이 책에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삶의 본질은 깨닫고 지금의 삶의 모습에 충실하자.”라는 의미를 나타내었다. 이 부분에서 니체의 사상은 소확행과 연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1

차라투스트라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사랑하며 신은 죽었으니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여 초인(Übermensch)로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긍정하며 살아가되 좀 더 큰 행복과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방식, 즉 소확행과 반대되는 대확행을 바라는 것이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찬성 2

“니체가 말하고자 한 것이 큰 목표를 설정하라는 말이었을까?”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삶을 성찰하는 인간인 초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합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살펴보면 초인이론은 ‘삶은 평범한 것이고 지금 현재에 충실하자.’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중략) 이것은 소소한 욕구를 해소함에 있어 확실하고 큰 만족을 느끼는 것이기에 니체의 ‘우리가 성찰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극복하고, 정해진 운명에 따라 순응하며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그런 모든 운명을 긍정하라’고 말하는 초인이론과 연관 지을 수 있어 이 토론 주제에 찬성합니다.

반대 2

“니체는 발전을 원치 않고 평범에 안주하는 삶만을 추구했을까?”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목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생략) 저마다의 가진 목표의 생김새는 다릅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일상들도 소소한데, 살아가는데 있어 행복만큼은 대단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통장 잔고, 수상경력 등 객관적인 것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일상을 보내며 나에게 재미있는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것들은 많습니다. (중략) 하지만 이는 행복이 아닌 즐거움입니다. 길고 진한 행복을 주는 것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의 삶을 사랑하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니체가 말하고자 한 삶의 방향과 더 맞다고 생각하여 이 토론 주제에 반대합니다.

	<p>C (찬성)- 이번 주 활동을 통해 초인 사상을 평범한 현실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소확행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을 하면서, 초인 사상을 소확행과는 다르게 초인이 되기 위해 인생의 큰 목표를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측 의견을 통해 초인 사상을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행복의 기준은 다르지만 소확행과 대확행 둘 다 초인의 길로 가기 위한 목표는 같다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p> <p>A (반대)-토론을 진행하고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의견과 생각은 달랐지만, 니체의 사상에 대해 함양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토론을 진행해본 결과, ‘초인 사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략)</p> <p>B (진행자)-토론의 진행하기 전, 자신의 ‘평범하고 일반적인’ 삶을 긍정하고 사랑하나, 나는 특별하지 않다는 말만 보았을 때는 니체의 사상과 관련 있는 것은 소확행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인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자리를 성찰하자는 말도 행복을 바라보는 방식과 연관을 지을 수 있고, 대확행도 소확행도 초인 사상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i>필요시 칸을 늘려 사용하세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활동 계획
<p>지도교수 종합의견</p>	